

■순천시 재선 성공 새누리당 이정현

뚝심으로... 지역구도 또 넘었다

시골장터부터 도심까지 유권자 파고들어 소통

새누리당 이정현 순천 후보가 지역구 재선에 성공했다.

지난 18대 비례대표 당선까지 합하면 3선째다. 이번 총선에서 재선의 꿈을 이루면서 이 후보는 지난 선거기간 동안 부르짖던 호남 출신 '여당 대표'의 꿈도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이번 총선에서 광주·전남 최대 격전지로 꼽히면서 여야 대결구도로 전국적 관심의 대상이 된 순천에서 이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노규구 후보를 7.52P차(8415표)로 누르고 사실상 당선됐다.

13일 오후 11시30분 현재 이 후보는 5만 1086표, 노 후보는 4만 2671표. 이 후보는 지난 1988년 소선거구제 도입 이후 광주·전남에서 첫 번째 새누리당 계열 출신 재선 당선자라는 타이틀을 갖게 됐다.

이 후보는 지난 2014년 7·30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1년8개월간 시골장터부터 도심 한복판까지 살살이 훑으며 표심을 자극했다. 이 과정에서 이 후보는 국정교과서 관련 발언으로 지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게 됐고 시민사회단체의 소환정문회 운동, 예산폭탄 공약을 둘러싼 논란 등 큰 장애물을 만나게 됐다. 특히 경쟁 상대인 노 후보의 막강한 조직력과 야권 텃밭이라는 강점 등 넘어야 할 산도 많았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겠다. 새누리당부터 바꾸겠다"면서 "순천시민들의 은혜와 성원을 바탕으로 새누리당 당대표에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특히 "저 이정현에게 꿈이 있다. 호남도 대한민국의 일원으로서 정당한 대접을 받고 모두가 바라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게 저의 꿈이었다"면서 "시민 여러분이 그 기회를 다시 한 번 저에게 주셨다. 저는 새누리당 대표에 도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또 "지지지 여러분 앞에서 약속하고 시민들께서 베푸는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뚝뚝뚝 걸어갈 것"이라며 "저에 대한 지지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순천 젊은이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순천 경제 발전을 위해 뛰면서 일하겠다"고 피력했다. /순천=김형호기자 khh@

과정에서 광양·곡성·구례로 합해진 점도 약재 중의 약재였다. 하지만 이 후보는 막판까지 뚝심 있게 유권자 속으로 파고드는 전략을 구사, 순천 시민들에게 재신임을 받는 데 성공했다.

여당 출신인 이 후보가 야당의 텃밭인 순천 지역구 의원으로 국회 재입성에 성공하면서 당내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겠다. 새누리당부터 바꾸겠다"면서 "순천시민들의 은혜와 성원을 바탕으로 새누리당 당대표에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특히 "저 이정현에게 꿈이 있다. 호남도 대한민국의 일원으로서 정당한 대접을 받고 모두가 바라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게 저의 꿈이었다"면서 "시민 여러분이 그 기회를 다시 한 번 저에게 주셨다. 저는 새누리당 대표에 도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또 "지지지 여러분 앞에서 약속하고 시민들께서 베푸는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뚝뚝뚝 걸어갈 것"이라며 "저에 대한 지지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순천 젊은이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순천 경제 발전을 위해 뛰면서 일하겠다"고 피력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새누리당 이정현 당선자가 13일 순천시 조례동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유권자들에게 큰절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

■광주·전남 유일 더민주 당선자-담양함평영광장성 이개호

광주·전남 '더민주' 전멸 막았다

초접전지 예상 깨고 득주 정책 연속 추진 설득 주효

더불어민주당 이개호(56) 담양·함평·영광·장성 후보가 4·13 총선에서 국민의당 강형욱 후보와 접전을 벌인 끝에 재선에 성공했다. 이 선거구의 예측할 수 없는 선거 양상은 13일 오후 6시에 발표된 방송사 출구조사에서 이미 예견됐다.

출구조사에서는 국민의당 강형욱 후보 48.8%,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후보 47.5%로 오차범위 내 초경합지역으로 분류됐다. 오차범위 경합지역 중에서도 1.3%p 차이는 광주·전남 18개 선거구 중 유일무이한 곳이었다.

하지만 개표가 막상 시작되자, 출구조사 발표와 달리 승부는 초반부터 갈렸다.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결과를 보면, 이 후보가 개표 초반부터 강 후보를 앞질렀다. 개표율 3.93%를 보인 이날 오후 7시30분 이 후보의 득표 수는 1971표, 강 후보는 1673표였다.

하지만 개표가 막상 시작되자, 출구조사 발표와 달리 승부는 초반부터 갈렸다.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결과를 보면, 이 후보가 개표 초반부터 강 후보를 앞질렀다. 개표율 3.93%를 보인 이날 오후 7시30분 이 후보의 득표 수는 1971표, 강 후보는 1673표였다. 소지역주의가 예상된 이 지역구의 경우 초반 강 후보의 고향인 영광의 개표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여서 영광의 개표율이 높아지면 표차가 좁아질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개표 중반에도 이 후보가 강 후보를 앞섰다. 개표율 53.15%를 보인 이날 오후 9시



13일 실시된 총선 담양·함평·영광·장성 선거구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당선인이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손을 들어 환호하고 있다. /영광=이종윤기자 jylee@

이 후보 2만5890표, 강 후보 2만2262표로 표차는 3628표였다. 개표율 76.25%를 보인 9시30분엔 표차가 4149표로 더욱 벌어졌다.

양 후보간 알지랴뒤지랴 할 것으로 예상됐던 승부는 애초 전망과 달리 이 후보의 독주로 이어졌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10시20분 격차를 4193표(개표율 92.35%)로 더 벌였고, 개표가 95% 진행된 이날 오후 10시50분 3893표 차로 벌리며 사실상 승부를 마감했다.

이번 재선 성공은 현직 의원으로 지난 4년간 국회 의정활동을 하면서 진행해 온 각종 정책을 연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유권자들에게 심어준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소지역주의 판세 속에서 강 후보의 고향인 영광에서 오히려 앞선 점도 이번 선거를 승리로 이끌었다는 관측이다.

재선에 성공한 이개호 당선자는 "지역 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겠다. 공직시절 경험과 인맥, 재선의 힘으로 더 많은 예산·국비 확보에 온 힘을 다하겠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을 반드시 바로 세우고 재선의원으로서 합당한 의무와 책임, 역할을 다할 것이다. 수권정당으로 거듭나 기필코 정권교체를 이뤄내는데 앞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종현기자 golee@

호남 제1야당 '25석 법칙'...안철수 웃었다

16~19대 모두 25석...국민의당, 20대 28석 중 23석 차이

제20대 총선 결과 '호남 25석의 법칙'이 이어졌다. 지난 16대 총선부터 19대 총선까지 최근 4차례 총선에서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이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25석 씩을 차지했다.

'호남 지역 제1당'이 얻은 의석수는 계속해서 25석이었던 셈이다. 과거 호남 전체 의석 수인 30석에서 6석 정도는 무소속 후보를 당선시키며 '호남 제1당'에 견제를 던졌지만, 지지정당은 확실했다.

지난 17대 총선에서는 탄핵 후폭풍으로 당시 열린우리당이 호남에서 25석을 얻기도 했다.

당시 새천년민주당은 전남에서 5석을 얻는 데 그쳤다. 앞서 19대 총선에서는

■역대 총선 호남지역 제1당 의석수 (단위:석)



통합진보당과의 야권연대로 양보했거나 경선 과정에서 무공천한 경우 등이 생기며 당시 민주통합당은 호남에서 또 다시 25석을 얻었다. /최원길기자 cki@kwangju.co.kr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안철수 신당인 국민의당의 가세로 사실상 호남에서 2野 대결이 펼쳐짐에 따라 '호남 25석 법칙'이 무너질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개표결과 국민의당이 호남 전체 28석 중 23석을 차지하며 '호남 제1당'으로 등극했다. 이번 총선에서는 전남과 전북에서 각각 1석씩이 줄면서 호남 전체 의석수는 30석에서 28석으로 줄었다.

따라서 사실상 이번 총선에서도 28석 중 5석만이 다른 정당이 차지했다.

이정현(순천)·정운천(전주) 새누리당 후보에 2석을,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이춘석(익산)·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 더민주 후보에 3석 등 5석을 나눠주는 법칙이 이어진 것이다. /최원길기자 cki@kwangju.co.kr

5월 30일 임기 시작...6월 5일 본회의서 의장단 선출

■20대 국회 일정은

의원 세비 年 1억4천만원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13일 마감됐다. 이번 총선 당선자들은 앞으로 어떤 일정을 소화하게 될까.

20대 임기는 선거일로부터 50일 후인 5월 30일부터 2020년 5월 29일까지 4년간이다. 당선자들은 각 지역 선관위로부터 당선증을 교부받은 뒤 임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정상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준비 과정을 거치게 된다. 우선 국회의원들은 개원종합지원실을 14일부터 한 달 동안 운영하며 국회의원 배지 배부와 국회의원 정식 등록을 지원한다. 또 재산 등록과 보좌직원 임용, 총선 당선자 간담회 등 절차를 거치게 된다. 임기가 시작되면 국회가 개원하는데, 국회법에 따라 임기 개시 후 7일째 되는

날 처음으로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본회의를 개최하고 의장단도 선출한다.

또 올해 말까지 국회 운영 기본일정을 정하는데, 국회법에 따르면 6월 30일까지 결정하도록 명시돼 있다. 당선자들은 임기 시작되는 날로부터 지역민들을 대표해 법률을 제정하고 예산 심의와 국정 감시 등 활동을 벌인다. 또 선거기간동안 내용은 공약과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틈틈이 살펴보고 업무를 수행해 나간다.

국회의원의 월급에 해당하는 세비는 월 1000만원이 넘는다. 매월 기본급 600만원, 임법활동비 313만6000원, 관리업무수당 58만원, 정액급식비 13만원에 연간 명절휴가비 775만원, 정근수당 646만 4000원, 야식비 59만원까지 국회의원의 세비(수당)는 월평균 1150만원 가량이다. 연간 1억4000여만원 수준인 셈이다. 가족도 혜택을 받는다. 국회의원 배우자와 자녀는 매달 각각 4만원과 2만원을

가족 수당 이름으로 지급받는다. 또 고등학생 자녀에게는 44만6700원, 중학생 자녀에게는 2만2400원의 학비수당이 3개월마다 지급된다. 또 국회의원은 총 9명에 달하는 보좌진을 둘 수 있다. 보좌과 2명과 비서관 2명, 비서 3명, 인턴 2명 등을 채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들은 별정직공무원 대우를 받으며, 최대 7천만원 가량의 연봉을 받는데 이들의 임금은 국가에서 지급한다.

불체포와 면책특권도 있다. 불체포 특권은 현행법이 아닌 이상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없이 체포되지 않는 것이고, 면책 특권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 조항이 있지만 일부 허용되는 측면이 있다. 국회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겸직은 금지하고 있지만, 공익 목적의 명예직 등 일부는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종현기자 golee@

직원채용

사계절 푸르른 양산디 친환경 나비의 고택- 함평다이너스티CC

모집부문 및 자격요건

모집부문	인원	부서별 담당업무	자격요건
경영지원팀 (총무, 회계)	2명	- 구매, 총무 업무 - 매출, 손익분석 - 문서관리 및 견표 등 업무보조	
경영지원팀 (프론트)	2명	- 안내데스크 및 고객응대 - 프론트 정산업무	- 고졸이상 학력 - 신입 및 경력사원
코스관리팀	2명	- 골프장 내 코스 및 잔디관리, 조경관리 - 잔디예초 및 일반관리	- 동종업계 근무 경력우대 (골프장, 리조트, 호텔 등)
식음료팀 (레스토랑 근무자)	4명	- 식음료팀 전반적인 업무 - 레스토랑 내 홀관리/홀서빙 업무	
시설팀 (라카 근무자) (남자)	1명	- 골프장 라카관리 업무	

급여 / 근무 형태: - 탄력적 근무제(주1회 휴무) - 연봉제(퇴직금 별도) - 급여(면접후 결정) - 신입연봉 2200이상 수준(경력직 면접 협의)

복지 후생: - 직원 숙소 제공 - 식사제공, 제수당 지급, 경조사 지원 - 우수사원 포상, 단체상해보험가입 - 4대보험(국민, 고용, 산재, 건강)

제출서류: - 이력서(사진부착) - 자기소개서

지원서 접수 및 문의: - 접수기간: 총정시까지 - 이메일 접수(ckjoneil@nate.com) - 문의전화: 061-320-7717 (담당자: 최광진)

건물임대

- 1층 246.27㎡ (74py)
- 2층 269.42㎡ (82py)
- 원도심 중심 상권 위치(목포역 근처)
- 약국, 의원, 한의원, 치과 등 최적
- 임대가 상담후 결정
- 즉시 입주 가능

구)보해상호저축은행

연락처 010-9962-9003, 010-9868-5151

혈당조절 때문에 걱정되시죠?

희소식 Ym 유한바이오 글리코엔 (N) 골드

식후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고시형 건강기능 식품입니다

당의 흡수를 억제시켜 Glucose를 조절합니다

하루 2번으로 혈당조절 ok!!

- 1 식후 혈당상승억제에 도움을 주어 혈당조절이 잘 되지만 혈당조절을 개선시켜줍니다.
- 2 가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한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 3 "혈당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정성된 마음으로 완성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 전화주시면 책, 자료, 무료로 우송해 드립니다 ※

문의 H.P 010-3598-7080/1899-3975